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8월 26일 개막,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소통을 탐구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5. 사진: 홍철기.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8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서울시립미술관, 낙원상가,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청년예술청에서 개최
- “현대미술과 동시대 미술의 발전에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경험은 어떤 역할을 해 왔는가?”라는 질문에서 출발
- 풍부한 영적 전통과 근대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도시 ‘서울’을 문화, 사회, 정치, 역사적 탐구의 플랫폼으로 제시
- 작가 50명/팀 참여: 애니 베전트와 C. W. 리드비터, 조지아나 하우튼, 힐마 아프 클린트, 데구치 오니사부로, 백남준, 이승택의 역사적, 혁명적인 실천부터 히와 케이, 아노차 수위차콘퐁, 키부 루호라호자와 크리스티안 니암페타의 커미션 작품을 통해 현대미술과 동시대 미술을 잇는 영적 실험의 역사를 영화, 영상, 사운드, 퍼포먼스, 드로잉 등 다양한 장르와 매체를 통해 조명

- 서울시립미술관(관장 최은주)은 8월 2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을 서울시립미술관, 낙원상가,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청년예술청에서 개최한다.
 - 2024년, 역대 두 번째 공모를 통해 초대된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예술감독팀은 뉴욕에서 작가, 기획자,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는 안톤 비도클 (Anton Vidokel), 할리 에어스 (Hallie Ayres), 루카스 브라시스키스 (Lukas Brasiskis)가 초대되어, 동시대의 전지구적인 현상과 미적 열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해석의 지점을 제시한다.
 - 이번 비엔날레의 주요 협력자로 이플렉스의 영문 에디터 벤 이스탐(Ben Eastham), 홍콩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전시 공간 디자이너 콜렉티브 (COLLECTIVE), 상하이로 기반으로 활동하는 그래픽 디자이너 논플레이스 스튜디오(nonplace studio), 사운드룸과 퍼포먼스 큐레이터 사나 알마제디(Sanna Almajedi) 등이 초대되었다.

- 이번 《강령: 영혼의 기술》은 하나의 질문, “현대미술과 동시대 미술의 발전에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경험은 어떤 역할을 해왔는가?”에서 출발하였다.
 -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예술감독팀은 지난 10년간 대안적 형태의 지식에서 영감을 얻는 예술가의 수가 급격히 증가해 온 현상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많은 경우 억압된 문화적 전통에 담겨있는 신비주의, 예지적 접근, 비밀스러운 시선이 예술 담론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이와 같은 기획의 관심사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 세상을 이해하고 작금의 위기에 관한 광범위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 일상을 넘어선 세계로 접근하기 위한 매개된 경험으로서 ‘강령’은 이번 비엔날레의 은유이자 형태적 모형이다. 오랜 역사에서 예술은 그 자체로 관습적인 인간 경험 너머로의 세계에 진입하여 그들과 조율할 수 있는 수단이 되어 왔으며, 예술감독팀은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 우리가 알고 있었지만, 규명하지 못한 이런 경험을 ‘영혼의 기술’이라고 명명한다.

□ 이번 비엔날레의 배경이 되는 서울은 풍부한 영적 전통, 급격한 근대화를 거치며 형성된 역사, 동시대의 전 지구적 문화 현상이 혼재하는 곳으로,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의 존재에 관한 질문을 나누기에 더할 나위 없이 적절한 플랫폼이다. 죽음과 상실, 영성과 의례, 기억과 치유, 구상과 추상 등 비엔날레의 주요 질문을 대입하고, 관련된 여러 현상을 관통하는 사회적, 정치적, 역사적 맥락을 통해 새로운 해석과 서사를 발견하게 한다.

○ 전시에 초대된 작가로는 역사적, 혁명적인 실천을 보여주는 애니 베전트와 C. W. 리드비터, 조지아나 하우튼, 힐마 아프 클린트, 데구치 오니사부로, 백남준, 이승택부터 커미션 작업을 선보이는 히와케이, 아노차 수위차콘퐁, 키부 루호라호자와 크리스티앙 니암페타 등이 있다. (참여 작가 리스트 붙임3 참조)

○ 동시대 여러 지역과 시간에서 전개되는 다양하고 혼란스러운 변화들 속에서, 많은 예술가는 숨겨진 여러 전통을 재발견하고 있다. 특히, 이번 비엔날레에서 제시하는 시간의 축, 약 200년을 걸쳐 다양한 시공간에서 전개되었던 매개, 표현, 소통, 트랜스, 미디어와 치유의 전통 속에서 동시대 작가들의 실천과 작품을 이해하고 접근하기 위한 통로가 된다. 헬레나 블라바츠키, 애니 베전트, 조지아나 하우튼, 힐마 아프 클린트와 같은 신비주의자들은 추상미술의 비밀스러운 역사에서 예언적 인물들로 등장한다.

- 데구치 오니사부로의 도자기 작품은 무관심한 미적 관조를 위한 예술 작품이기보다는 압축된 영적 전달의 역할을 한다. 엠마 쿤츠와 요셉 보이스는 치유와 균형 회복의 수단으로서 예술을 실천하고 제안했다. 백남준은 무속 의식과 동시대 매체의 통합을 통해 전통적 우주관이 기술적 진보에 대척되는 개념이 아니라, 그 목적을 재구성할 수 있음을 주목하였다.
- 하룬 미르자가 우주론을 바탕으로 재해석한 인도의 전통 세밀화, 크레이첸이 제시하는 원형과 복제 사이의 야릇한 분열, 슈 차웨이와 권병준이 무속과 기술의 자리를 뒤집어 드러내는 마법의 순간, 주역과 예술품이 장난감처럼 만든 정신적 수행의 교구 등은 결국 기술이 미래가 아닌 과거를 돌아보기 위한 수단 혹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런 관점은 오래된 미래의 도시 서울에서 낯설지 않은 기억으로 관객의 잠재된 의식을 일깨운다.

□ 전시는 총 11개의 소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근대미술의 혁명적 실천과 동시대 미술의 계보를 잇는 영적 실험의 역사를 영화, 영상, 사운드, 퍼포먼스, 드로잉 등 다양한 장르와 매체를 통해 조명한다. 전시에 초대된 참여 50명/팀의 작가와 프로그램에 초대된 40여명/팀의 작가들은 해방적 실천들을 통해 현재의 탈식민주의, 페미니즘, 생태학, 반자본주의 운동들과 연결하며, 예술이 완벽하게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공간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에 대항한다.

- 이승택의 〈분신행위예술전〉 재연 (1989/2025)은 한국은 물론 세계 미술사에서 주요한 행위적 실천으로, 예술을 물질적 지지체로부터 분리하여 예술의 영적 가능성과 해방을 꿈꾸었던 작품이다. 이러한 예술적 충동은 윙 포 소와 노무라 자이를 포함한 동시대 예술가들의 작품에서 새로운 표현으로 거듭난다. 여러 다른 시간과 장소에서 맞이한 근대성은 정신과 육체의 분리를 낳았고, 이와 같은 국면이 종

국에는 인간과 인간이 살아가는 환경 모두에 해롭다는 인식은 수잔 트라이스터의 수채화, 제인 진 카이젠의 영화와 퍼포먼스, 그리고 주역과 예술품의 ‘치유 도구들’ 과 같이 서로 다른 형태를 가진 작품들에서 공통으로 살펴볼 수 있는 지점이다.

- 특히, 비엔날레 커미션으로 신작을 소개하는 히와 케이, 아노차 수위차 콘퐁, 키부 루호라호자와 크리스티안 니암페타의 영상 작품들은 이라크 쿠르드, 태국, 아프리카 세네갈이 겪은 지나간 시간의 사건, 기억이나 지혜가 현재까지 지속되고 영향을 끼치는 상황과 풍경을 성찰한다. 이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억압과 지배의 체계 밖에서 살아남은 연약한 기억과 삶의 작은 기적을 기록하는 수단으로서 영상의 역할을 주목하며, 구체적인 사건 너머의 비가시적인 존재를 응시하고, 역사적 서사의 억압과 검열에 대항하는 예술적 공간을 제시한다.
- 이러한 작품들은 중첩되는 색채들로 구조화된 전시장의 개념적이고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예술이 완벽하게 ‘중립적’ 이거나 ‘보편적’ 인 공간으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구조와 맥락으로서 현실이라는 원칙에 무조건적으로 헌신하는 관습들을 거부한다. 오히려 이 작품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그 어떤 단일한 지식 체계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을 만큼 다양하며, 이 세계 속에는 보이지 않는 많은 세계가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 이러한 비엔날레의 접근 방식은 예술 경험의 정신적이고 비가시적인 가치가 비물질적인 예술의 지지체를 통해 구현되어 온 전통에 관한 전시의 기획적 헌신을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여러 장소에서 영화, 퍼포먼스, 사운드 프로그램을 통해 구체화 된다.

- 비엔날레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매주 토요일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에서 진행되는 영화 프로그램은 무빙 이미지가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경계를 흔들어 산 자와 죽은 자 사이를 매개하는 고유의 역할을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작품들을 제시한다.

- 낙원상가의 지역적이고 역사적인 맥락에서 영감을 받아 구성된 사운드룸은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실험 음악가들을 초대하여 사운드를 통해 ‘자아’와 ‘타자’의 구분을 희석하고, 해방의 가능성을 엿보는 시공간으로 청취자를 초대한다.
- 청년예술청에서 선보이는 ORTA(알렉산드라 모로조바와 루스뎀 베게노프)의 퍼포먼스는 현재 진행 중인 역사적 트라우마를 삶의 가능성으로 승화하는 수단으로서 창조성을 주목하며, 그것의 보이지 않고, 일시적이지만, 기억으로 남아 작동되는 힘을 적극 활용하는 참여형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 이번 전시는 영적 만남, 지각적 확장, 꿈같은 교감을 위한 공간이자, 탁월한 예술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발언하고, 소환하며, 변형될 수 있는 ‘공간’으로 제시된다.

□ 최은주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은 “이번 비엔날레는 그동안 서울이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반 발짝 앞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예견하고자 했던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실험성을 더욱 깊이 살펴보고 있다.”라며 “이번 전시에 초대된 여러 작품은 삶이 무엇인지 질문하기 위해 죽음과 상실을 더욱 깊이 들여다보는 통로를 제시하고,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체계 밖에 감추어진 세계를 조명한다. 모쪼록 이번 비엔날레를 통해 오래된 예술, 믿음과 지식의 체계를 의심하고, 현재 우리 영혼을 새롭게 들여다보는 기술을 발견해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의 전체 프로그램에 관한 세부 내용과 예약 안내는 비엔날레 웹사이트(mediacityseoul.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홈페이지 및 소셜 미디어

홈페이지 <https://mediacityseoul.kr>

인스타그램 [instagram.com/seoulmediacitybiennale](https://www.instagram.com/seoulmediacitybiennale)

페이스북 [facebook.com/mediacityseoul](https://www.facebook.com/mediacityseoul)

유튜브 [youtube.com/SeoulMediacityBiennale](https://www.youtube.com/SeoulMediacityBiennale)

○ 서울시립미술관 대표 소셜 미디어

인스타그램 <https://sema.seoul.go.kr/>

엑스(트위터) x.com/SeoulSema

페이스북 [facebook.com/seoulmuseumofart](https://www.facebook.com/seoulmuseumofart)

유튜브 [youtube.com/seoulmuseumofart](https://www.youtube.com/seoulmuseumofart)

카카오톡 채널: http://pf.kakao.com/_QgRPn

(붙임 1) 주요 이미지 ※ 이미지를 사용할 때 정확한 크레딧 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미지와 크레딧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5. 사진: 홍철기.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5. 사진: 홍철기.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권병준, <중심에서 피어나는; 잠재태의 황금꽃>, 2025. 혼합 매체(모터, 전자석, 알루미늄 프로파일, 컨트롤보드, 3D 프린터로 제작한 PLA, 낚싯대, 장식용 술, 운판, 컴퓨터), 각 400 × 300 × 350 cm(아해, 로봇 무당 4점), 가변 크기.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5. 사진: 홍철기.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노무라 자이, <유령>, 2024/2025. 작고한 이들의 사진, 염색용 잉크, 물, 잉크젯 프린터, 물 탱크, 오존수 발전기, 양수기, 미니 PC, LCD모니터, 싱글보드 컴퓨터, 키보드, 태블릿 PC, 인터넷 클라우드. 152 × 102 × 60 cm.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5. 사진: 홍철기.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데구치 오니사부로, <요완(耀盃)(빛나는 찻잔)—와코(조화와 빛)> 외, 1944. 라쿠다완(樂茶碗). 6.9 × 11.4 × 11.5 cm.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5. 사진: 홍철기.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백남준, <TV 부처>, 1989. 청동 조각, TV 모니터, 캠코더. 105 × 140 × 70 cm.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5. 사진: 홍철기.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아노차 수위차쿤퐁, <서사>, 2025.
 단채널 비디오. 49분.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5. 사진: 홍철기.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엠마 쿤츠, <무제> 외, 연도 미상
 갈색 모눈종이에 연필과 색연필. 91.5 × 91.5 cm
 (액자 93.5 × 93.5 × 5 cm).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5. 사진: 홍철기.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이승택, <분신행위예술전> 재연, 1989/2025.
 퍼포먼스 및 남겨진 비조각. 30분(퍼포먼스), 가변
 크기(남겨진 비조각).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5. 사진: 홍철기.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조지아나 하우튼, <주님의 힘> 외, 1860년대.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5. 사진:
홍철기.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키부 루호라호자와 크리스티안 니암페타,
<속삭임>, 2025. 단채널 비디오. 29분.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5. 사진: 홍철기.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히와 케이, <당신은 무엇도 느끼지 못할 겁니다>,
2025. 단채널 비디오. 22분.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5. 사진: 홍철기.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힐마 아프 클린트, <타오르는 불꽃>, 1930
 종이에 수채. 47 × 31 cm.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5. 사진: 홍철기.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5. 사진:
 홍철기.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5. 사진:
 홍철기.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5. 사진: 홍철기.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5. 사진: 홍철기.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2025. 사진: 홍철기.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라파엘 케네디트 모랄레스, <아바쿠아 벽화>, 1979. 검정색으로 코팅된 메탈시트에 레이저 커팅. 1,100 × 20,000 × 2 mm.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전시 전경, 서울시립미술관 SeMA-카페+, 2025. 사진: 홍철기.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사운드룸 전경, 낙원상가 325호, 2025. 사진: 홍철기.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ORTA(알렉산드라 모로조바와 루스뎀 베게노프), <새로운 천재들의 위대한 원자폭탄 반사기 경험>, 2025. 퍼포먼스. 90분.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강령: 영혼의 기술》 퍼포먼스 전경, 청년예술청 그레이홀, 2025. 사진: 홍철기. 서울시립미술관 제공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예술감독팀
(왼쪽부터) 할리 에어스, 안톤 비도클, 루카스
브라시스키스. 사진: 홍철기

(붙임 2)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개

2000년 ‘미디어_시티 서울’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SMB)는 지난 30여 년간 도시 서울의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미술의 동시대성과 실험성을 주목하며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본 비엔날레는 1996년부터 개최된 ‘도시와 영상’에서 서울과 미디어와 관련한 사유의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고, 이후 2년마다 열리는 비엔날레 형식으로 시대와 공명하는 다양한 생각과 활동을 담아왔다.

에디션마다 약 50여 명/팀의 작가가 참여하고, 평균 14만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SMB는 서울시립미술관과 도시 내의 여러 장소에서 전시와 프로그램을 개최하며 다양한 방식의 참여를 매개한다. 2022년부터 미술관이 운영하는 사전프로그램(프리비엔날레)은 미술관의 비엔날레 소장품과 디지털 기록을 중심으로 SMB 정체성을 탐구하며 본 행사의 바탕이 되는 개념을 축적하고 있다.

mediacityseoul.kr

(붙임 3)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소개 전체 작가 및 참여자 명단

○ 본 전시 (총 50명/팀)

과달루페 마라비야, 권병준, 노무라 자이, 데구치 오니사부로, 라우라 우에르타스 밀란, 라파엘 케네디트 모랄레스, 루돌프 슈타이너, 뤼실 올랭프 오프, 마누엘 마티유, 마야 데렌, 마이크 켈리, 모하메드 가베르, 박찬경, 백남준, 비올렛 e a, 샤나 몰튼, 수잔 트라이스터, 슈 차웨이, 스카이 호핀카, 아노차 수위차콘퐁, 아밋 두타, 안리 살라, 안민정, 안젤라 수, 애니 베전트와 C. W. 리드비터, 어니스트 A. 브라이언트 3세, 엠마 쿤츠, 온다 아키, 요셉 보이스, 요아킴 쾨스터, 요하나 헤드바, 윙 포 소, 윤형민, 이승택, 인주 첸, 제인 진 카이젠, 조던 벨슨, 조지아나 하우스튼, 주역과 예술품, 카라 디테 한센, 카라빙 필름 콜렉티브, 코리타 켄트, 콜렉티브 로스 잉그라비도스, 크레이 첸, 키부 루호라호자와 크리스티안 니암페타, 타마르 귀마레스와 카스페르 악호이, 하룬 미르자, 히와 케이, 힐마 아프 클린트, ORTA (알렉산드라 모로조바와 루스탐 베게노프)

○ 사운드룸 (총 16명/팀)

라 몬테 영, 로리 스피겔, 리징쑹 (딕슨 디), 마타나 로버츠, 메레디스 영-사우어스, 발터 스페타크, 브레이어 P-오리지, 아니아 록우드와 루스 앤더슨, 안토니아 노바츠카, 야라 메카웨이, 온다 아키, 이아름, 제리 헌트, 조시 드 올리베이라, 최정희, 칼 미카엘 폰 하우스볼프

○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 (총 21명)

가와세 나오미, 니나 멘케스, 라울 루이즈, 로베르토 로셀리니, 루이스 부뉴엘, 마르셀 카뮈, 마야 데렌, 마티 디옵, 슐레이만 시세, 아피차퐁 위라세타쿤, 알리 체 로르와커, 압바스 키아로스타미, 이장호, 장뤽 고다르, 카롤린 데오다, 카밀로 레스트레포, 켈 맥멀런, 타카미네 고, 트린 T. 민하, 페드로 코스타, 피에르 파올로 파졸리니

- 제13회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 프리즈 필름 서울 2025 (총 12명/팀)
라우라 우에르타스 밀란, 슈 차웨이, 스카이 호핀카, 아노차 수위차콘퐁, 아밋 두타, 안젤라 수, 요아킴 콰스터, 제인 진 카이젠, 정위안, 타마르 귀마레스와 카스페르 악호이, 카라빙 필름 콜렉티브, 콜렉티브 로스 잉그라비도스

- 청년예술청
ORTA (알렉산드라 모로조바와 루스탐 베게노프)

기본 정보

- 사업담당자: 서울미디어시티비엔날레 프로젝트 디렉터 권 진
(02-2124-8975 / nakwonjin@seoul.go.kr)
- 홍보문의: 주무관 권대희(02-2124-8945 / kwon.daehee@seoul.go.kr)

이미지 다운로드 방법

- 아래 링크 접속 및 다운로드

[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vB-XNYy7-fggjRq0e5f8pNzLSt
bt1fyg?usp=sharing](https://drive.google.com/drive/folders/1vB-XNYy7-fggjRq0e5f8pNzLStbt1fyg?usp=sharing)